

주말 쇼핑

혼수 가전품

# 비싼 최신형보다 실속형 인기

올 4월 결혼을 앞둔 김춘식(30)·이지영(30) 예비부부는 혼수 비용 절감을 위해 가전 구입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필요한 제품 중 크고 오래 쓸 물건은 좋은 제품으로 하되 지난해 유행했던 모델 위주로 선택하고, 소형가전은 선물을 받거나 저렴한 것으로 준비하기로 했다.

광주신세계 이마트 오중목 가전 담당 매니저는 “불황때문에 예산과 달리 비싼 제품이나 최신 모델을 선호하기보다는 자신에게 필요한 실속형 제품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며 “비슷한 성능이나 크기라면 매장 전시품이나 구형 모델을 주문하는 것도 알뜰 혼수 장만 요령”이라고 조언했다.

### 냉장고 용량 넉넉한 것 선호

◇큰 TV가 대체=혼수 가전 비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디지털 TV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1.6cm(40인치) 이상 LCD 제품이 대세다.

최근에는 가격이 많이 내려가 금요일이나 화요일 등 전자제품 전문점에서 100만원 중반대 가격에 101.6cm(40인치) LCD TV를 장만할 수 있다.

◇크고 화려한 냉장고 인기=맛별이를 하는 신선 부부가 늘면서 음식을 많이 저장할 수 있는 700ℓ 이상 대형 냉장고가 인기다. 대신 디자인을 꼼꼼히 따지는 편이다. 같은 용량이라도 디자인에 따라 가격 차이(최고 40만원 가량)가 있지만 냉장고가 주방 분위기를 좌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드림세탁기 지고 일반세탁기 뜨고=지난해까지는 드림세탁기가 대세였지만 최근에는 고급형 일반세탁기가 인기를 끌고 있다.

드림세탁기의 경우 70만~130만원대로 가격



### 유통업체 특별세일로 손짓

도 비싼데다 전력 소모량도 많고 허리를 굽혀 빨래를 꺼내야 하는 등 실용성이 떨어지는 편. 반면 일반세탁기(12kg급)는 에어워시, 은나노 워시, 알레르기 케어 등 고급 기능을 갖췄으면서도 50만~70만원대로 가격이 저렴하다.

◇유통업체 판촉행사 활용=하이마트 상무점은 오는 3월1일까지 특별 세일을 진행. 기획모델(한정 상품)에 한 해 최대 50%까지 할인판매하

고 있다. 또 진열상품 중 700ℓ 이상 대형 냉장고는 120만~150만원대에, 107cm(42인치) LCD TV는 100만원대에 판매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이마트는 구매한 제품을 직접 가져가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5~10% 할인행사를 상시 진행하고 있으며 일정금액 이상 구매할 경우 상품권을 증정하고 있다.

홈플러스 동광주점은 가전 전품목 6개월 무이자 할부 행사를 비롯해 소형가전 행사상품 구매 시 1만~2만원권 상품권을 증정하고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광주·전남 상장사에 무슨일?

# 50분새 악재·호재성 공시...투자자 큰 피해

### '지엔알' 조작 의혹

‘의도된 것이나, 단순 실수냐’ 광주지역 한 상장사가 불성실 공시 논란에 휩싸였다.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투자자들이 태양광 설비업체인 ‘지엔알’의 지난 18일 공시를 문제삼고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 투자자들은 회사측이 불과 50여분 사이에 악재와 호재성 공시를 연이어 내놓으면서 주가가 급등락해 큰 손해를 입었으며 공시 배경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실제로 지엔알이 이날 오후 1시3분 “56억원대의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공시하자 주가가 곧

바로 하한가까지 직행했고, 이어 1시 57분과 2시 2분 “115억원 대규모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자 상한가까지 직행, 1시간 사이에 30%의 등락폭을 보였다. 거래량도 평소의 8배에 달할 정도로 급증해 손바뀜도 활발했다.

문제는 소송 제기 공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다. 현행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6조 1항에는 자기자본 10%이상에 해당하는 소송을 제기당할 경우 소송 사실을 확인한 당일에 공시하도록 돼있다.

지엔알은 18일 광주지방법원으로 부터 송달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날 공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송을 당했다”고 공시하자 주가가 곧

이 송달문을 받은 시점은 공시 전날인 17일로 명기돼 있다. 현행 규정에는 회사측이 설혹 17일 늦게 소송 사실을 알게됐더라도 다음날인 18일 시간외 매매거래 개시 10분전인 오전 8시 20분까지는 공시하도록 돼 있다.

투자자 박모(44)씨는 “명백한 불성실 공시로 악재성과 호재성 공시를 이용해 물량을 빼앗으려는 의도가 없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 관계자는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코스닥시장은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확인될 경우 벌점부과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수익률 1,000% C&重, 상한가 행진 9일만에 마침표

### 해외매각설로 급등

최근 국내 증시에서 최고의 화제주로 떠오른 C&중공업이 9일만에 상한가 행진을 마감했다.

19일 코스피시장에서 C&중공업은 9일만에 상한가 행진을 접고 하한가(-14.94%)로 추락해 3천245원으로 장을 마쳤다.

지난달 말 채권단의 해외매각 추진 소식 이후 급등세를 보이다 '너무 많

이 올랐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상한에서 하한가로 직행했다.

C&상선, C&우방랜드, C&우방 등 다른 C&그룹 관련주도 대거 조정에 들어가면서 줄줄이 하한가로 내려앉았다.

C&중공업은 지난달 28일 이후 16거래일 중 14일간 상한가를 찍었다. 지난달 23일 기업 퇴출 소식으로 440원까지 하락했던 주가는 오늘 장중에 4천385원까지 올라 산술적으로는 수

익률 1000%에 근접했다.

C&상선도 최근 14거래일 가운데 10일간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C&그룹주가 이상급등 현상을 보였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C&중공업에 대한 해외매각 기대감으로 그룹 관련주가 모두 기대 이상으로 폭등했다”며 “하지만 해외매각이 성사되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많아 주의깊게 살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대신증권 양홍석부사장, 미등기 임원 '주식부자 1위'

### 평가액 462억원 달해

주요 상장사 미등기 임원들 가운데 역대 주식 부자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상장기업들의 미등기임원에 대한 지분공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상장사 미등기 임원들의 주식 보유 상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신증권 양홍석 부사장(사진)은 자사 보통주 282만



19주와 우선주 130주 등 총 3.25%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일 종가 기준으로 양 부사장이 보유한 지분의 평가액은 462억여원에 달해 미등기 임원중 주식부자 1위를 차지했다.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조병덕 부사장은 보통주 3천400주를 보유한 것으로 공시됐다. 주당 가격을 50만원으로 잡으면 평가액이 17억여원에 달한다.

한편 주식 실명전환에 따라 '사실상 지배주주' 자격으로 19일 지분보유를 공개한 이강희 전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전자 주식 499만7천여주(2.94%), 삼성SDI 주식 39만9천여주(0.85%)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재계 전문 사이트인 재벌닷컴이 1천804개 상장사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지분 가치를 18일 종가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이강희 전 회장은 2조5천217억원으로 4년여 만에 주식 부호 1위로 올라섰다.

/연합뉴스

## 연말정산 환급처리 10일 이내로 단축

### 국세청, 20일부터 신청 가능

국세청은 19일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기업·국가기관·지자체·학교·비영리단체 등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환급처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결과 납부할 세액보다 원천징수 세액이 많은 근로자에게 그 차액을 돌려주는

데, 일단 2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할 세액에서 근로자에게 먼저 환급한 뒤 추가로 환급할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해 환급금을 지급 받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이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환급처리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환급금 지급편의를 위해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내 '연말정산' 항목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세 신고, 환급신청 등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환급신청은 20일부터 가능하며 연말정산 멘투멘상담 홈페이지(www.yesone.go.kr/call)정보마당)자료실)에 제출서류 작성방법이 게재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조석래 전경련 회장 유임

조석래<사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유임됐다. 전경련은 19일 오전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제48회 정기총회를 열고 조 회장을 32대 회장으로 재선임했다. 2007년 3월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으로부터 바통을 넘겨 받아 2년간 활동해 온 조 회장은 앞으로 2년간 전경련을 다시 이끌게 됐다. 한편 GS그룹 허창수 회장과 STX 강덕수 회장이 새로 부회장에 합류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IPALCO 하이브리드 외벽빙수 리모펠링. Features a man in a suit, images of the product, and text describing the benefits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phone number (062)511-0444.

Advertisement for 이태리 가구 & 장식품. Promotes a 50% discount on 8 types of furniture. Includes the logo for '홍스제이스' and phone number TEL. 326-7567.